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식지

NO.35

2019 봄 · 여름호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Culture
Spring / Summer 2019

박물관가이드

전시소개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 소장품 특별전 <분청사기 紛靑沙器>

박물관 소식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국보 지정

2019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이화여대박물관 문화 커넥터 프로젝트> 선정

박물관 교육 2019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산책> 선정 및 진행
소장품 특별전 <분청사기> 연계 체험교육프로그램 <도자기에 담긴 그림 이야기>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 소장품 특별전

<분청사기> 관람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33기 도슨트 김채은(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4학년)

분청사기전이 시작된 5월 30일, 가장 기대되던 전시 개막 소식에 부푼 마음을 안고 2층 기획전시관으로 향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분청사기전은 제1실부터 제5실까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한국도자계에 정평이 나있는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품의 규모와 위상에 따라 어떤 도자기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하며 제1실부터 순차적으로 전시 관람을 시작했다.

제1실은 분청사기 명칭 유래, 용어, 기법에 관한 설명과 함께 20세기의 분청사기와 15세기 상감분청사기가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중 독특하다고 여겨진 점은 흔히 분청사기가 조선 백자의 등장과 함께 쇠퇴했다고 알려진 통념과 달리 전세품으로 보이는 20세기 전반의 분청사기가 가장 먼저 전시되어있다는 점이었다. 여기서는 일제강점기에 개량된 분청사기가 제작되었던 이유와 “분청사기”라는 용어가 탄생했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기법으로는 백토를 도드라지게 찍어내는 방식, 옷칠한 자기에 나전을 불인 문양장식 등이 나타나 일제강점기 변화를 맞은 한국도자의 일면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다음 장에서 나타나는 상감분청사기는 백상감으로 시문한 것, 면상감과 역상감으로 포류수금문이나 연화모란문을 새긴 것을 위주로 전시되고 있다. 기형은 동그스름하면서도 당당한 풍채를 지닌 매병들이 돋보이며 특히 독립장의 <분청사기상감 연류문 ‘덕천’명 매병>이 그러한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제2실은 인화분청사기를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인화기법은 문양이 양각된 도장을 찍고 상감하는 방식으로 도안적이고 규격화된 특성을 보여준다. 인화분청사기에는 관청의 그릇을 개인이 소장하지 못하도록 관사명을 새겨넣었으며, 1420년대에는 제작의 정절을 이루었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 왕실이 어떤 조형성을 추구했는지 알 수 있었다. 한편 전시장 한쪽에는 인화문을 싹 빼닮은 수화 김환기(1913-1974)의 작품도 자리 잡고 있어 조화를 이루며 전시를 풍성하게 했다. 제3실은 여말선초에 지역별로 흩어진 도자장인들이 토착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전통과 결합하여 독창적인 기법을 구현한 15세기의 분청사기들을 보여준다. 계룡산 분청사기는 철화기법으로 그려낸 질고 활달한 문양을 통해, 전라도 요지의 분청사기들은 통통한 모란문 등을 표현한 박지기법을 통해 각자의 독특한 매력을 뽐내고 있었다. 이밖에도 귀얄과 덩병기법으로 제작된 분청사기도 전시되어있어 분청사기 쇠퇴과정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실은 미디어아트와 분청사기의 이미지가 결합한 참여형 작품이 전시되어있고, 5실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 소장한 부안 우동리 가마터 수습 도편들과 휴식의 공간이 마련되어있었다. 특히 미디어아트는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최신 유행 이모티콘들이 시시각각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신체 움직임에 반응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직접 체험해보니 분청사기의 아름답고도 자유방만한 문양들은 어쩌면 조선조 사기장인들의 감정을 표출하는 이모티콘이었겠다는 상상도 가능했다. 이외에도 관람을 마치고 전시실 밖으로 나가면 분청사기 도자기 컬러링, 인화문 찢기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있어 연령과 사용 언어에 상관없이 분청사기의 미감을 느끼며 제작기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은 시각적으로 유물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의 기회로 인하여 전시참여의 주제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대 박물관이 전시 방식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며 시대에 호응하는 젊은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다. 분청사기만의 생동하는 아름다움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획으로 인해 지식적, 예술적으로 균형있는 만족을 얻고자 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을 전시라고 생각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올해가 가기 전, 보다 다양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이 전시를 놓치지 않길 기원해본다.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

국보(國寶) 지정

박물관 소장품인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靑瓷淳化四年銘壺)가 국보 제326호에 지정되었다. 문화재청은 '순화4년'명 향아리가 보물 지정 56년 만에 국보로 승격했다고 5월 2일 밝혔다.

이 향아리는 우리나라에서 청자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던 10세기 고려 초의 가장 확실한 편년자료로, 드문 형태와 유색, 명문 등으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초기에 이미 보물로 지정되었다가 해방이후 일본인 수집가와 골동상 등을 거쳐 1957년 본교 박물관에 소장되었다. 1963년에는 보물 제237호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국보 제326호로 승격된 것이다.

향아리의 굽바닥에는 「淳化四年 癸巳太廟第一室 享器匠崔吉會造(순화4년 계사태묘제일실 향기장최길회조)」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그 내용을 통해 이 향아리가 태조왕건의 신위를 모신 고려의 태묘 제1실 향기(享器, 제사용 그릇)였으며 장인(혹은 감독관)이었던 최길회가 제작을 담당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향아리가 만들어진 시기가 순화 4년, 즉 서기 993년(고려 성종 12년)임을 명시하고 있어 현전하는 완형의 고려청자 중 제작시기가 가장 이른다. 고려의 태묘(太廟)는 개성에 있었으며 성종8년(989) 4월 15일에 착공해서 성종11년(992) 12월 1일에 준공되었다는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는 태묘가 준공된 이듬해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향아리의 유색이나 태토에 보이는 특징은 1989-1990년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淳化三年(992)’과 ‘淳化四年(993)’의 명문 청자 파편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제작지가 황해남도 배천 원산리 일대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개성 만월대의 고려왕궁터 유적 발굴을 통해 고려 초기 청자 파편들 가운데 유색과 질이 비슷한 유물들이 알려지면서 이 유물의 역사 문화적 의의는 더욱 분명해졌다.

우리나라는 가치 있는 유형문화재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 그 가운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으면서 보존 상태나 미적 가치가 높은 것들을 보물로 지정하고, 보물 가운데 더 중요한 것들은 국보로 승격된다. 이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조선 최고의 걸작이라 불리는 백자철화 포도무늬 향

아리(국보 제107호)와 함께 현존하는 고려 최고(最古)의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 등 2점의 국보를 소장하게 되면서, 국보 2건 2점, 보물 7건 10점, 중요 민속문화재 3건 3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5건 5점, 등록문화재 1건 1점 등 총 18건 21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다.

1935년 개관하여 올해로 84주년을 맞는 박물관 유물의 국보 지정 소식은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도 한국문화와 예술을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해 온 문화의 수호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는 지난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를 마쳤고, 현재 박물관 상설전시관에서 공개되고 있다.



“문화 커넥터 프로젝트”로 「2019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선정

박물관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19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이화여대박물관 문화 커넥터(connector)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은 대학박물관 소장품의 가치와 의미를 21세기형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문화자원 연계 사업이다.

박물관은 이 사업에 작년과 올해 연속 선정되었는데, 올해에는 “이화여대박물관 문화 커넥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 특별전 <분청사기>를 비롯하여 3개의 연계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는다. 9월에 진행될 체험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분청사기 제작 기술과 함께 각 지역의 분청사기 파편을 직접 살펴볼 수 있으며, 10월 가을밤에 진행될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에서는 분청사기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하고 시청각예술로 표현한 여운승교수(본교 융합콘텐츠학과)의 작품이 공연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 관람에 도움을 주는 활동지가 전시장 내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전시설명 프로그램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별로 본교와 박물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추후에 홍보될 예정이다.

80여년의 역사를 가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앞으로도 문화예술 소장품을 활용하여 이화 가족과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대학 내의 다양한 전공을 망라하는 융복합적 연계를 통해 대학박물관만의 미래지향적 활성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화여대박물관 문화 커넥터 프로젝트”를 비롯한 박물관의 여러 활동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산책> 선정 및 진행

박물관은 전시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문화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하여 어린이 대상의 체험교육프로그램, 성인 대상의 학술세미나 등 대상별로 전시를 보다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아카데미> 등 전시 연계 이외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각계각층의 많은 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4년 10월 29일 첫 문화가 있는 수요일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오후 7시까지 연장 개관 및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전시설명회, 각종 인문강좌 및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9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박물관협회 주관 <2019년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지원, 선정되어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산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산책>은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흥미 있는 문화 예술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이대박물관 전시와 함께하는 소장품 이야기” 인문 강좌 및 분청사기 전시 연계 체험교육 “나만의 소장품 만들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ewha.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장품 특별전 <분청사기> 연계 체험교육프로그램

도자기에 담긴 그림 이야기

2019년 박물관에서는 특별전 <분청사기>와 연계하여 ‘도자기에 담긴 그림 이야기’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소장품 특별전 <분청사기>를 관람하며, 박물관 소장 도자기 유물 속 다양한 문양 종류와 기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도자기 속 다양한 문양들을 활용해 창의적인 나만의 액자를 만들어 봄으로써, 도자기에 담긴 문양의 의미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대상 : 초등학교 3학년 - 초등학교 6학년

교육내용 및 시간 (1시간 30분 소요)

14:00-14:05	인사 및 소개
14:05-14:35	소장품 특별전 <분청사기> 전시 관람
14:35-15:25	‘도자기에 담긴 그림 이야기’ 체험활동
15:25-15:30	사진촬영 및 소감나누기

교육일정

오후 14:00-15:30	6/29(토)
	7/13(토), 7/27(토)

참가비 : 1인당 12,000원

신청 및 문의 : TEL 02-3277-3675 E-mail museumedu@ewha.ac.kr Homepage <http://museum.ewha.ac.kr>

